

교회 회 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권홍용 편집: 양재웅

우리는 2011년을 시작하는 신년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거듭나기 전의 니고데모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요 3:3).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좁고 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보다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 니고데모의 길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여 그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길(요 14:6)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기점으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회개(행 11:18)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믿음(히 11:6)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력교구별로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이지만, 가능하면 매일 참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죽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가?
니고데모의 길인가?

사순절 특별새벽기도의 주력교구

날 짜	주력교구	날 짜	주력교구
3월 14일(월)	전교인	4월 1일(금)	5, 15, 23교구
3월 15일(화)	4, 9, 18교구	4월 2일(토)	예배위원회
3월 16일(수)	5, 10, 19교구	4월 3일(주)	예배위원회
3월 17일(목)	6, 11, 21교구	4월 4일(월)	전교인
3월 18일(금)	1, 7, 12교구	4월 5일(화)	8, 16, 20교구
3월 19일(토)	예배위원회	4월 6일(수)	7, 13, 21교구
3월 20일(주)	예배위원회	4월 7일(목)	1, 9, 18교구
3월 21일(월)	전교인	4월 8일(금)	4, 10, 19교구
3월 22일(화)	8, 13, 22교구	4월 9일(토)	예배위원회
3월 23일(수)	14, 15, 23교구	4월 10일(일)	예배위원회
3월 24일(목)	10, 20, 24교구	4월 11일(월)	전교인
3월 25일(금)	2, 9, 11교구	4월 12일(화)	3, 11, 17교구
3월 26일(토)	예배위원회	4월 13일(수)	2, 12, 22교구
3월 27일(주)	예배위원회	4월 14일(목)	5, 23, 24교구
3월 28일(월)	전교인	4월 15일(금)	6, 13, 14교구
3월 29일(화)	3, 12, 16교구	4월 16일(토)	예배위원회
3월 30일(수)	4, 17, 18교구	4월 17일(주)	예배위원회
3월 31일(목)	6, 14, 19교구		

성령의 말씀(금요찬양집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마태는 예수님이 잉태되시는 것부터 태어 나실, 또 어린 시절을 다섯 가지의 내용으로 알려준다. 사건 하나하나를 설명할 때마다 구약의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의 태어 나심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 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어린 아기에 관하여 요셉에게 확신을 주는 것으로(마 1:22-25) 이는 구약의 아하스 왕에게 예언으로 주셨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사 7:14). 요셉은 이를 믿었고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존행하였다. 두 번째로는 예수가 태어나는 장소,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다(마 2:1; 눅 2:1, 4~7; 미 5:2). 세 번째로는 애굽으로 피하는 사건이다(마 2:13~15).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헤롯왕과 동방박사들을 쓰셔서(호 11:1; 마 2:16~18)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굽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다(렐 31:15).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사렛에 안착하는 예수님의 가족이다(마 2:19~23; 사 11:1).

마태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바라본다. 반복적으로 '이루려함이라' 또는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역사적인 측면에서만 구약의 이야기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루어졌음'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야기들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주신 그 약속을 선포하고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목적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선포하는 목적을 이루어주시길 것을 보여주셨다(창 3:15). 그 목적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또 그 목적을 이루어주시길 약속은 이 어린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완성되었다.

이러한 마태의 기술에 대해 마태가 경건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하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입증되는 증거들을 버티어 낼 수가 없었다. 이 사상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는 왜 마태가 이토록 특정한 성경구절들을 구약 성경에서 택하여 뽑아냈느냐는 것이다. 메시시아에 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예언이 이루어짐을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마태의 목적이었던가? 당시 이미 좋은 내용의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마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그가 택한 말씀 중에서 확실하게 메시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가서에 기록된 그의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의 정조는 본래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표적이었으며 호세아 11:1 말씀도 예언이 아닌 과거의 출애굽을 회상하는 말씀이다. 또한 예레미야 31:15 말씀은 예루살렘이 BC 587년에 망한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슬퍼하는 모습이다. 이는 예언도 아니고, 그 내용은 메시시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마지막으로 나사렛과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 분명하지가 않아서 이와 관련된 명백한 구약의 참고는 물론 확실한 해석조차 찾기 힘들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에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것보다 보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들부터 뒤돌아보며 전에는 미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특정 구약의 말씀을 마태는 깊이 헤아려 주고 있다. 이야기와 사건들이 성경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 말씀이 사건을 지적해 주는 것만이 아니다. 말씀이 기록된 사건들의 분명한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이 맞았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에 의하여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마태는 증거한다. 약속은 예언보다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다. 아멘.

THE TRUTH OF RIGHTEOUSNESS AND HOLINESS

⁽¹⁶⁾nevertheless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even we have believed in Christ Jesus, so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since by the works of the Law no flesh will be justified.

⁽¹⁷⁾“But if, while seeking to be justified in Christ, we ourselves have also been found sinners, is Christ then a minister of sin? May it never be! ... ⁽²¹⁾“I do not nullify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comes through the Law, then Christ died needlessly.”

(Galatians 2:16-21)

How does one live a righteous and holy life? The truth of righteousness (justification) and holiness (sanctification) is clearly defined in the Bible, especially in today's passage, to relate to God's work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not people and their works through the Law. All human beings are made righteous and holy apart from works of the Law and only by faith in Jesus Christ. No one becomes righteous or holy by their works! Sadly many of today's churches are teaching and practicing false doctrines concerning this issue. Every church proclaims to live to glorify God, but so many then say that in order to glorify God one must do this and that. What are important to these churches are people gaining high levels of respect through their good works. Let's look at what the Bible teaches.

The Bible tells us that Jews and Gentiles are both sinner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Rom. 3:23). All sinners who believe in Jesus Christ receive God's gift of righteousness and holiness. “There will be tribulation and distress for every soul of man who does evil, of the Jew first and also of the Greek, but glory and honor and peace to everyone who does good,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For there is no partiality with God. For all who have sinned without the Law will also perish without the Law, and all who have sinned under the Law will be judged by the Law”(Rom. 2:9-12). Jewish people think righteousness comes from keeping the law, which is why Paul seriously debated with them on this important issue. No human can be justified because of ancestry. The Jews received God's law, which is why they knew what is sin, “What shall we say then? Is the Law sin? May it never be! On the contrary, I would not have come to know sin except through the Law; for I would not have known about coveting if the Law had not said, ‘You shall not covet.’ for sin, taking an opportunity through the commandment, deceived me and through it killed me. So then, the Law is holy, and the commandment is holy and righteous and good”(Rom. 7:7, 11-12).

The Bible tells us that Jews and Gentiles can be justified by faith in Jesus Christ, “nevertheless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even we have believed in Christ Jesus, so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since by the works of the Law no flesh will be justified”(Gal. 2:16). God's law cannot make anyone righteous or holy. Only faith in Jesus can declare one righteous in God's sight and vindicated of any charge of sin in connection with failure to keep God's law. Galatians 5:6 says,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means anything, but faith

working through love.”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are a Gentile or a Jew; every human being must have faith in Jesus to be justified. God does not show partiality in this, as Peter testified to Cornelius and his family, “I most certainly understand now that God is not one to show partiality”(Ac. 10:34). Paul also confirmed this to the Ephesians when he talked about the relations between slaves and masters, “And masters, do the same things to them, and give up threatening, knowing that both their Master and yours is in heaven, and there is no partiality with Him”(Eph. 6:9). God will show no favoritism, either for the unfaithful slave or for the unjust master, “For he who does wrong will receive the consequences of the wrong which he has done, and that without partiality”(Col. 3:25). God looks at each person's heart. What must you do to be justifie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Ac. 16:31).

The Bible tells us that faith is not only the base of justification, but of sanctification as well, “But if, while seeking to be justified in Christ, we ourselves have also been found sinners, is Christ then a minister of sin? May it never be! For if I rebuild what I have once destroyed, I prove myself to be a transgressor. For through the Law I died to the Law, so that I might live to God”(Gal. 2:17-19). One cannot live by faith and live by the Law; they don't mix. Right now, churches worldwide are mixing faith and law, thus making Christians so burdened. It is very sad, but you know that the primitive church made the same mistake, which is why Paul wrote Galatians. The 21st century churches don't emphasize the cross; they emphasize the duties of human beings. Paul argued that Christ is not a minister of sin; He is not responsible for our continuing sin after we are justified by faith. The answer to this dilemma is not to once again put ourselves under the law but to continue in our new life in faith in Christ. Jesus Christ's sacrifice has made the law completely useless in achieving sanctification for believers. Paul said,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 I do not nullify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comes through the Law, then Christ died needlessly”(Gal. 2:20-21).

What is the truth of righteousness and holiness? It is very, very simple-only believe in Jesus Christ. Please don't practice or preach human duty. Please don't tell others that they must do this or that in order to be righteous and holy. Faith alone in Jesus Christ justifies and sanctifies each individual. Amen. **M**

의로움과 거룩함의 진리

⁽¹⁶⁾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 ⁽²¹⁾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16~21)



김성관 목사

어떻게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의로움(칭의)과 거룩함(성화)의 진리는 성경에서 아주 명료하게 정의됩니다. 특히 오늘날 본문은 이것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과 그들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해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지거나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문제에 대해 오늘날 많은 교회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공언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높게 평가받아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으로 본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의 은사를 받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야 선을 행하는 자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롬 2:9-12).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그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조상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와 보전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롬 7:7,11,12).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하나님의 율법은 그 어떤 사람들도 의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의롭게 하며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해 변호하여 줍니다. 갈라디아서 5:6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할례나 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이 이

방인이거나 유대인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다 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할 때 밝히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행 10:34).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상전들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지 않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행 6:9). 하나님은 불성실한 종이나 불의한 주인도 편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심이 없느니라”(골 3:25).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믿음은 의롭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성화시킨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헛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면 내가 나를 법범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갈 2:17~19). 믿음으로 살면서 율법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율법은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많은 교회가 믿음과 율법을 섞으며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초대교회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하였기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21세기의 교회들은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간이 해야 할 의무들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도는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 범하는 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을 바울은 주장했습니다. 이 딜레마에 대한 대답은 율법 아래 우리 자신을 또 다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신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율법을 전혀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 2:20~21)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의로움과 거룩함의 진리입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제발 인간의 의무를 실천하거나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사람들에게 의롭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의롭게 되고 거룩해집니다. 아멘. ■

2011년 제1차 청지기훈련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이어! (딤후 1:15)

✚ “아멘”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찬찬한 은혜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늘 강단에서 내려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며 확증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와 죄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사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방법으로 죄를 범하였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와 감사를 드립니다. 몰어도 안 되는, 애써도 안 되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은 십자가의 은총이라는 명백하고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과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모르게 하는 내 속의 자아, 자존심, 세상의 지혜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나의 가족들을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 주소서. 임남민(집사, 7교구)

✚ 그 옛날 주가 걸으신 길

매일 주시는 은혜 속에 살면서 복음을 몰라 스스로 방황하던 나를 부르시고 청지기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령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으므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내기 진리를 찾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심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기 예배자로서 우리를 감동하시되 우리가 타락하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시고 다시 천송하게 하시는 은혜가 커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구속받아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내가 그 죄인에 해당되어 구원받을 백성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원하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속마음을 알았고 찢릴 받았습시다. 그리고 지혜롭고 선한 자를 찾으러 오시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찾아오신 구원의 예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죄인으로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라도 그 마음 녹이고 철저히 당신의 소우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오히려 나는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의인으로 꾸미고 있었는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나를 의인으로 꾸미려고 수고하며 내 힘을 다 쓰므로 내가 항상 곤고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보잘것없고 사랑의 저주 아래 갇혀 있어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무서운 저주를 감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음성을 외치셨기에 감사하며 <그 옛날 주가 걸으신> 찬송을 온 마음을 다해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나를 부르시며 살수하시길 할 때를 소망합니다. 강경원(집사, 20교구)

✚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201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다는 목사의 짧고도 강한 메시지는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감사하

기보다는 열려와 근심이 있었고, 내 삶의 중심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방인의 생활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 늘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있다면 주님의 선물이며, 죄짐에 눌린 한숨이 있다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청지기훈련은 이런 한숨과 갈망이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전에 갔을 때 감사와 기쁨의 모습으로 달려나온 성도들로 성정이 채워지자 ‘정말 주님의 재림을 맞는다면 이런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잠시나마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은혜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정말 진리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시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영원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망각하고 사는 존재이기 ‘예수님은 진짜입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늘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고백하며 한 보 한 보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영목(집사, 9교구)

✚ 나의 영을 깨워주신 주님

방학 중이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청지기훈련에 참석하지 못하게 봐 걱정이 많았다.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귀찮은 마음이 포기하는 심정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 주셨다. 또한 오랫동안 주님을 멀리한 친구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다. 정말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청지기훈련에서는 내가 왜 죄인이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해야 함을 배웠다. 나, 우리, 나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셨다. 청지기훈련을 받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과수임을 고백하였다. 이제까지 내가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죄를 회개하였고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그 속에 확신이 없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과수이지만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 태초부터 계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내가 이를 믿기만 하면 나에게 영생을 주심을 확인한다. “주님을 소중히 하였지만 친구도 은혜 받게 하시고 나의 영을 깨워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박경연(집사, 8교구)

✚ 가끔씩 의인, 가끔씩 죄인, 나는 괴수

25일 밤, 일을 마치고 아이와 늦게 도착한 나는 교회 복도에 주루룩 앉아 있는 사람들을 지나 이미 차 버린 본당 대신에 갈릴릴루로 들어갔다. 그때 바로 들리는 단어가 ‘죄인’이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죄인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함은 나를 모두에 포함시키면서 내가 죄인 됨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느끼고 싶은 본능에 가까운 자기방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 내가 나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때가 생각났다. 언젠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남편이 마을 때 '그래도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괴로울 때가 있었다. 그때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당신 앞에 죄인이야?" 하면서 논쟁하고 싶은 갈망한 마음을 내려놓았던 적이 있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은 죄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죄'를 싫어하며 그 이름에 관계되기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다. 차라리 회개해 줘.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 나의 죄에 대해 생각한다. 말씀(율법)에 비춰서, 또 습관적으로 양심에 비추어, 또 가름은 도덕적인 기준에 비추어 죄를 찾아 아뢰며 회개한다. 꼭 흰 바탕에 검은 얼룩 점들을 뽑아내어 회개로 지우듯이 말이다. 그렇게 하면 용서의 주님으로 인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때 나는 의로워지는 것 같다. 그렇게 나는 가끔씩 의로워진다. 또 가끔씩 교회 안에서, 생활에서 어떠한 일들을 잘했을 때, 칭찬받을 때, 스스로 뿌듯한 느낌이 들 때 난 의인이 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애쓰는 마음은 어드나 내게 의로움이 된다.

그러나 어떠한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나의 죄성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 의인일 때가 더 많은가 보다. 그렇게 이중적인 내게 목사님은 죄인! 죄인! 죄인!을 계속 말씀하셨다. 분명 모두가 아닌 내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었다. 마음 한쪽에선 '듣기 좋은 소리도 세 번 이상 들으면 듣기 싫은 법인데, 나 안다는데 왜 자꾸 외치실까?' 하면서 귀를 닫으려 했다. 그러나 내게 항하신 그 말씀은 나의 과수 뭇을 보게 하셨다. 조금이라도 의롭게 생각되던 모든 것을 벗겨 버리고 실체가 드러나 부끄러운 나 자신을 보게 하셨다. 어드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한 감사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왔다. 그 감사는 '감사'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감사이며, 나의 죄인 뭇은 '죄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죄였다.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과 관계 맺은 죄인입니다. 주님이 제게 기쁨이 된 것은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재숙(집사, 10교구)

죄인인 저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저는 점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댕겼던 내 입술의 고백이 외식하는 자의 고백이 되어버린 듯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으로도 가득해야 할 나의 그릇에 세상의 것들만 가득차서 흙이 나도 모르는 사이 주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아가 살아 있는 이 모습으로 도저히 십자가 앞에 다가설 수도, 바라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번 청지기훈련은 그저 쫓겨났던 시간이었습나다. 그렇게 고개를 숙인 채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온 저는 아마 또 입술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 기도회 시간, 철저한 자기부인과 회개를 통해 십자가만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심령을 허락받았습니다. 청년1부 집회를 통해 찾아와주시는 예수님은 연이어 주일날 접했던 시편 17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한 나의 죄를

때 더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죄인인 저는 스스로

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붙들린 바되어 그분의 거룩한 간섭에 매 순간순간 만족해 하며 십자가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죄인인 저를 사랑해주시고 천히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제 삶 가운데 끝없이 자랑하며 이 죄인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이 사도행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김정미(성도, 19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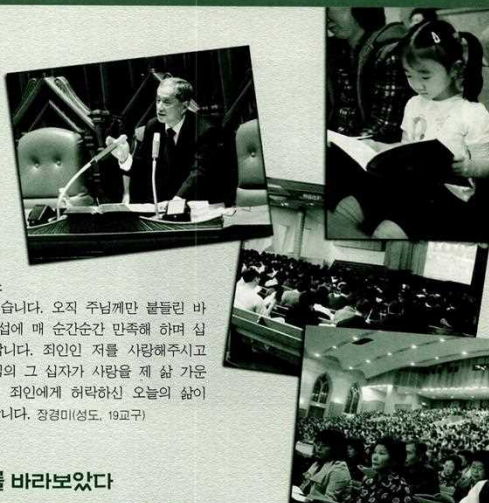
죄인 된 나를 바라보았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요 또한 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할 속에서 죄인 된 모습으로 초라하게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인 뭇과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똬으신 주님의 이름과 영접을 통한 구원을 '세상의 축복의 창'이 아닌, 오직 '구원의 창'으로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선물이며, 기도가 있다면 주님의 숨결이고, 죄 짐에 눌려 깊은 한숨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라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해 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뜨거운 심령을 주셨습니다. 김세종(집사, 13교구)

나는 여지없는 죄인이구나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올 겨울은 지난 해와 달리 유난히 추운 날이 많았다. 연초 천지 경계에서 다녀오면서 혼자 되었는데. "아! 나는 여지없는 죄인이구나. 도둑 같이 그 날이 이르면, 그 때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영접할 수 없는데 주님 증거하기를 어찌까지 미루고 있구나." 믿음 없는 소천에 슬픔을 더하는 것은,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임을 새삼 느꼈다. 오랜 시간 만난 이웃들을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죄임을 알기에 나는 만날 때마다 다 전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전도하면 "예, 그러지요" 답하고 "언제 나오실 건가요? 이번 주일에 나오세요" 당부하면 "금주에는 어려워요. 다음에 갈게요" 계속 반복되는 대화. 드디어 1차 청지기훈련이 다가왔다. 더 이상 늦쳐서는 안 된다. "금주 금요일에는 청지기훈련이 있습니다. 교회에 꼭 나오셔야 합니다" 강권하자. "예, 일찍 나가지요"라고 답하였고, 함께 청지기훈련에 참석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부 예배를 드리는 민호가 아프거나, 회사에서 곧바로 교회로 올 때에는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했다. 민호가 같이 오는 날은 예배준비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청지기훈련 때에는 자하 1층 복도에서 예배에 참석한다. 이 날은 혼자 올 수 없는 사랑부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여 은혜를 나눈다. "여지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항상 예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김대덕(집사, 14교구)



심자가 복음

진정한 복음과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8)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ash)의 수요일이다. 인생은 한 줌의 재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날, 복음에 집중하자.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또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은 전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복음이다(갈 1:1). 이것이 이방인 지역인 갈라디아에 선포된 복음이었다. 이 복음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부흥하였다. 그런데 이 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일단 이들은 복음을 인정하였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결국 이들로 말미암아 단순한 복음이 복잡해지며, 믿음보다 율법의 행위가 점점 중시되었다(갈 1:4~7).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현안들을 제시하며 고민하며 연구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이 희미해진 것이다. 분명히, 다른 복음은 없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어느새 다른 복음에 젖어 들었다.

●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가?

진정한 복음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요 3:16).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접할 때 얻는다(요 1:12; 딤후 4:10).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보다 율법을 중시하였다(갈 2:4).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모든 사람들은 솔깃하였던 것이다. 아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율법이 아닌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력하게 외쳤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

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갈 2:16~17). 복음에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가 가미될 수 없다. 오직 화복 재물로 심자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다(요일 2:2; 고후 13:13). 진정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시작된다(갈 1:3).

●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갈 1:4).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롬 3:23).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을 통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단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갈 2:20).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입한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부인하였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 2:21)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일깨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율법이 절대로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갈 3:17).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기에, 이 죄의 굴레를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갈 3:22). 결국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된 회개다(행 2:38).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롬 10:9~10).

● 무엇이 다른 복음인가?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다(갈 1:6). 성령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고전 15:3~4)을 부인하는 모든 것(요일 2:22)이 다른 복음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엡 2:8~9). 이 구원의 선물에 율법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은 지극히 초동적이다(갈 2:16, 3:24~25). 그런데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훨씬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속삭이고 있다. 이 거짓 유혹에 속지 말자. 진정한 복음 안에 있을 때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요 17:14).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을 때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요일 2:15~16).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7). 진정한 복음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요 6:40).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순절이 되길 원한다. 아멘.

메시아의 죽음 ⑥

두 번째 떠나서 기도하시고 돌아오다

단어를 총 27회 사용했는데 이는 신약성경 전체의 1/5이나 되는 분량이다. 또한 '말씀'(총 42회 사용)이라는 단어와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또'(총 55회 사용)라는 단어도 자주 사용했다. 이와 같이 마가가 자주 사용했던 단어를 마태도 복음서를 기술할 때 사용하였다(막 14:39~40, 68, 70; 마 26:42~44).

갓세마네 동산의 장면을 기술함에 있어서 마태는 예수님, 마가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었다. 예수님은 갓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물론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슬픔과 피곤에 겨워 잠이 들었다. 첫 번째 기도 후에 잠자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기도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예수님은 다시 나아가 기도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장면에 대해서 마가보다는 마태가 더욱 자세히 기술하였다. 마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와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를 기술하면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막 14:35, 40). 이에 반해 마태는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의 내용을 깊이 설명하였다. 또한 두 번째라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마 26:42). 이와 같은 마가의 기술은 이사가 53장에서 묘사한 주님의 고난을 떠올리게 한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에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인정하며, 아버지가 전적으로 의탁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나лаг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라고 가르쳐주신 그대로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은 어떤 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우리 기도의 초점이 있다. 결국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지게 된다.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잠 들었다. 누가는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기술하였다(눅 22:45). 제자들은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 대신에 불리하게 들어가는 상황으로 인해 고민하며 슬퍼하였고, 결국 지쳐 잠에 빠지게 된 것이다. 제자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믿음이 아니면 반드시 실패한다(왕상 19:2~4).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다(창 48:10). 은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엉뚱한 일을 계획하게 된다(막 9:5~6; 눅 9:31~33).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이다. 믿음의 기도는 지령이 같은 우리를 새 타작기(사 41:15)로 만들어 준다. 믿음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애들 동산의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더 아름답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 매 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00시)에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임

1. 정기당회
일시: 16일(수) 수요2부예배 후 장소: 당회실

발세

- 1. 방한암 타고산교(강좌와 안수침사의 도전 - 양영애 전사의 시도, 20교로 50구구) / 5월 18일, 5월 25일
2. 김철선 심도경 장로회 후회침사의 도전, 20교로 50구구 / 5월 18일, 5월 25일
- 3. 박철원 심도경 장로회 후회침사의 도전 - 이정순 전사의 시도, 19교로 50구구 / 5월 18일, 5월 25일
- 4. 김철선 심도경 장로회 후회침사의 도전 - 이정순 전사의 시도, 19교로 50구구 / 5월 18일, 5월 25일
- 5. 최철원 심도경 장로회 후회침사의 도전 - 이정순 전사의 시도, 19교로 50구구 / 5월 18일, 5월 25일

결혼

- 1. 이주환 군(이영호 성도 - 유수환 성도의 아들, 타고)와 김영선 장(김태호 성도 - 장순태 성도의 딸, 7교) / 19일(토) 11:00, 하리교회당전면 2층 아나인교회(7교로 50구구) 3월 20일
- 2. 이종호 군(이영호 성도 - 정복자 성도의 아들, 18교)와 유수환 장(유수환 성도 - 양수환 성도의 딸, 타고) / 19일(토) 11:0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 3동 2가동 2층 202호
- 3. 윤준환 군(윤장성 성도 - 정복자 성도의 아들, 타고)와 신정선 장(신정선 성도 - 이주환 전사의 딸, 14교) / 19일(토) 12:30, 노들섬에 달린전면 1층 202호
- 4. 이희철 군(이영호 성도 - 김순기 전사의 아들, 6교)와 김수연 장(김수연 성도 - 나일선 전사의 딸, 21교) / 19일(토) 13:00, 육교로
- 5. 이희철 군(이영호 성도 - 김순기 전사의 아들, 6교)와 김수연 장(김수연 성도 - 나일선 전사의 딸, 21교) / 19일(토) 13:00, 육교로

남녀전도회 전염연습
일시: 매주일 15:00~16:04월 3일(목) 장소: 재교과관 401호

김시와 전염연습
일시: 매주일 15:00~16:05월 22일(목) 장소: 재교과관 507호

전도회 3·4회 주회기도회
일시: (토) 15:00~16:00월 18일(토) 장소: 갈림길교회

수회기도회
일시: 3월 19일~4월 26일 매주일 15:00~16:00 장소: 재교과관 1층 대회의실

총회 교회주전도회
일시: 매주일 15:00~16:00월 18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전도회 3·4회 주회기도회
일시: (토) 15:00~16:00월 18일(토) 장소: 갈림길교회

수회기도회
일시: 3월 19일~4월 26일 매주일 15:00~16:00 장소: 재교과관 1층 대회의실

총회 교회주전도회
일시: 매주일 15:00~16:00월 18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전도회 3·4회 주회기도회
일시: (토) 15:00~16:00월 18일(토) 장소: 갈림길교회

수회기도회
일시: 3월 19일~4월 26일 매주일 15:00~16:00 장소: 재교과관 1층 대회의실

총회 교회주전도회
일시: 매주일 15:00~16:00월 18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전도회 3·4회 주회기도회
일시: (토) 15:00~16:00월 18일(토) 장소: 갈림길교회

수회기도회
일시: 3월 19일~4월 26일 매주일 15:00~16:00 장소: 재교과관 1층 대회의실

총회 교회주전도회
일시: 매주일 15:00~16:00월 18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전도회 3·4회 주회기도회
일시: (토) 15:00~16:00월 18일(토) 장소: 갈림길교회

수회기도회
일시: 3월 19일~4월 26일 매주일 15:00~16:00 장소: 재교과관 1층 대회의실

총회 교회주전도회
일시: 매주일 15:00~16:00월 18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전도회 3·4회 주회기도회
일시: (토) 15:00~16:00월 18일(토) 장소: 갈림길교회

수회기도회
일시: 3월 19일~4월 26일 매주일 15:00~16:00 장소: 재교과관 1층 대회의실

총회 교회주전도회
일시: 매주일 15:00~16:00월 18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전도회 3·4회 주회기도회
일시: (토) 15:00~16:00월 18일(토) 장소: 갈림길교회

수회기도회
일시: 3월 19일~4월 26일 매주일 15:00~16:00 장소: 재교과관 1층 대회의실

총회 교회주전도회
일시: 매주일 15:00~16:00월 18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전도회 3·4회 주회기도회
일시: (토) 15:00~16:00월 18일(토) 장소: 갈림길교회

수회기도회
일시: 3월 19일~4월 26일 매주일 15:00~16:00 장소: 재교과관 1층 대회의실

총회 교회주전도회
일시: 매주일 15:00~16:00월 18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전도회 3·4회 주회기도회
일시: (토) 15:00~16:00월 18일(토) 장소: 갈림길교회

수회기도회
일시: 3월 19일~4월 26일 매주일 15:00~16:00 장소: 재교과관 1층 대회의실

총회 교회주전도회
일시: 매주일 15:00~16:00월 18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전도회 3·4회 주회기도회
일시: (토) 15:00~16:00월 18일(토) 장소: 갈림길교회

수회기도회
일시: 3월 19일~4월 26일 매주일 15:00~16:00 장소: 재교과관 1층 대회의실

총회 교회주전도회
일시: 매주일 15:00~16:00월 18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전도회 3·4회 주회기도회
일시: (토) 15:00~16:00월 18일(토) 장소: 갈림길교회

수회기도회
일시: 3월 19일~4월 26일 매주일 15:00~16:00 장소: 재교과관 1층 대회의실

총회 교회주전도회
일시: 매주일 15:00~16:00월 18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전도회 3·4회 주회기도회
일시: (토) 15:00~16:00월 18일(토) 장소: 갈림길교회

수회기도회
일시: 3월 19일~4월 26일 매주일 15:00~16:00 장소: 재교과관 1층 대회의실

총회 교회주전도회
일시: 매주일 15:00~16:00월 18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전도회 3·4회 주회기도회
일시: (토) 15:00~16:00월 18일(토) 장소: 갈림길교회

수회기도회
일시: 3월 19일~4월 26일 매주일 15:00~16:00 장소: 재교과관 1층 대회의실

총회 교회주전도회
일시: 매주일 15:00~16:00월 18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전도회 3·4회 주회기도회
일시: (토) 15:00~16:00월 18일(토) 장소: 갈림길교회

수회기도회
일시: 3월 19일~4월 26일 매주일 15:00~16:00 장소: 재교과관 1층 대회의실

총회 교회주전도회
일시: 매주일 15:00~16:00월 18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전도회 3·4회 주회기도회
일시: (토) 15:00~16:00월 18일(토) 장소: 갈림길교회

수회기도회
일시: 3월 19일~4월 26일 매주일 15:00~16:00 장소: 재교과관 1층 대회의실

2011년 전반기 교육총연합회 '인생 / 교육목회 / 교육목회 2주, 4주'

- 교육목회 2주: 4월 10일(토) 15:00~16:00월 18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4주: 4월 24일(토) 15:00~16:00월 22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6주: 5월 8일(토) 15:00~16:00월 6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8주: 5월 22일(토) 15:00~16:00월 20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10주: 6월 5일(토) 15:00~16:00월 3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12주: 6월 19일(토) 15:00~16:00월 17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14주: 7월 3일(토) 15:00~16:00월 1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16주: 7월 17일(토) 15:00~16:00월 15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18주: 7월 31일(토) 15:00~16:00월 29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20주: 8월 14일(토) 15:00~16:00월 12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22주: 8월 28일(토) 15:00~16:00월 26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24주: 9월 11일(토) 15:00~16:00월 9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26주: 9월 25일(토) 15:00~16:00월 23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28주: 10월 9일(토) 15:00~16:00월 7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30주: 10월 23일(토) 15:00~16:00월 21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32주: 11월 6일(토) 15:00~16:00월 4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34주: 11월 20일(토) 15:00~16:00월 18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36주: 12월 4일(토) 15:00~16:00월 2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38주: 12월 18일(토) 15:00~16:00월 16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 교육목회 40주: 12월 31일(토) 15:00~16:00월 29일(토) 장소: 재교과관 507호

총연합회 / 총연합회도심 축복행사 모임

- 1. 모 집부: 김태호 전사(이영호 성도 - 유수환 성도의 아들, 타고)와 김영선 장(김태호 성도 - 장순태 성도의 딸, 7교) / 19일(토) 11:00, 하리교회당전면 2층 아나인교회(7교로 50구구) 3월 20일
- 2. 모 집부: 김태호 전사(이영호 성도 - 유수환 성도의 아들, 타고)와 김영선 장(김태호 성도 - 장순태 성도의 딸, 7교) / 19일(토) 11:00, 하리교회당전면 2층 아나인교회(7교로 50구구) 3월 20일
- 3. 모 집부: 김태호 전사(이영호 성도 - 유수환 성도의 아들, 타고)와 김영선 장(김태호 성도 - 장순태 성도의 딸, 7교) / 19일(토) 11:00, 하리교회당전면 2층 아나인교회(7교로 50구구) 3월 20일

시온성 특별세례기도회 (3/14~3/20)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김규식	박정현/홍진기	나기태/정현석	유현철/이영호	김정훈/이도현	김인영/장혜수	이광현/나영선
교 본 분	대외외의 죽음	죽 4:1-13	마 16:13-20	골 3:1-3	골 3:1-3	골 3:1-3	골 3:1-3
주 력 고	전교인	4, 9, 18교구	5, 10, 19교구	6, 11, 21교구	7, 12, 13교구	매예배위원회	매예배위원회

예배 담당 (3/16~3/20)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3/16	수요 I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세상에 오신 이유(딤후 1:15) 김성관 목사	강호성	김영태	하나님을 의아들(호산나 찬양대 - 오케스트라)
	수요 II	성령 충만한 십자가(행 16:6-10) 김성관 목사	강호성	김영태	예수 십자가에 홀린 복자(심리관 찬양대)
3/18	금요집회	김성관 목사	박용현	메수살렘 찬양대 - 오케스트라 / 트럼펫 이영호 / 소프라노 김현정	(예배 전 찬양)
	주일 I	외로움과 거룩함의 전리(갈 2:16-21) 장지현 목사	황의현	이 훈	
	주일 II	외로움과 거룩함의 전리(갈 2:16-21) 장지현 목사	이희철	김현태	성령과 같은 보혈은 외 / 소프라노 김지희(임바누엘 찬양대)
	주일 III	외로움과 거룩함의 전리(갈 2:16-21) 장지현 목사	김영철	김종훈	주 만는 사할 이나 외 / 바이올린 장연희(전원 연주자)
	주일 IV	외로움과 거룩함의 전리(갈 2:16-21) 장지현 목사	김백만	정경진	오 신실하신 주 외 / 아벨 남상종찬단
	주일 V	외로움과 거룩함의 전리(갈 2:16-21) 장지현 목사	이광현	지우성	대 영호의 그릇 외 / 대외외(바나나밴드 오케스트라)
	주일일영양	율법의 능력(갈 3:23-29) 김성관 목사	하종철	유용석	봉사위원의 중창 / 핸드벨 연주대 / 9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 02-552-8200)

구 분	시 간	장 소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전 1:00(외국인 특별예배)	본 당
V	오전 3:00 (젊은이들 드림 예배)	본 당
주일일영양	오전 5:00	본 당
금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수요예배	토요일 저녁 7:0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 분	시 간	차 량
I	오전 9:40 본당 앞 출발	
II	오전 11:00 (8:50 부부회, 10:20 아담의 경유)	
III	오전 12:30 (오전 9:50 본당 앞 출발)	
IV	오전 13:30 (오전 10:30 본당 앞 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I	오전 11:00	제1교과관 110호
II	오전 12:30	제1교과관 201호
III	오전 13:30	제1교과관 207호
IV	오전 14:45	제1교과관 407호
V	오전 15:00	제1교과관 407호
VI	오전 16:00	제1교과관 407호
VII	오전 17:00	제1교과관 407호
VIII	오전 18:00	제1교과관 407호
IX	오전 19:00	제1교과관 407호
X	오전 20:00	제1교과관 407호
XI	오전 21:00	제1교과관 407호
XII	오전 22:00	제1교과관 407호
XIII	오전 23:00	제1교과관 407호
XIV	오전 24:00	제1교과관 407호
XV	오전 25:00	제1교과관 407호
XVI	오전 26:00	제1교과관 407호
XVII	오전 27:00	제1교과관 407호
XVIII	오전 28:00	제1교과관 407호
XIX	오전 29:00	제1교과관 407호
XX	오전 30:00	제1교과관 407호
XXI	오전 31:00	제1교과관 407호
XXII	오전 32:00	제1교과관 407호
XXIII	오전 33:00	제1교과관 407호
XXIV	오전 34:00	제1교과관 407호
XXV	오전 35:00	제1교과관 407호
XXVI	오전 36:00	제1교과관 407호
XXVII	오전 37:00	제1교과관 407호
XXVIII	오전 38:00	제1교과관 407호
XXIX	오전 39:00	제1교과관 407호
XXX	오전 40:00	제1교과관 407호
XXXI	오전 41:00	제1교과관 407호
XXXII	오전 42:00	제1교과관 407호
XXXIII	오전 43:00	제1교과관 407호
XXXIV	오전 44:00	제1교과관 407호
XXXV	오전 45:00	제1교과관 407호
XXXVI	오전 46:00	제1교과관 407호
XXXVII	오전 47:00	제1교과관 407호
XXXVIII	오전 48:00	제1교과관 407호
XXXIX	오전 49:00	제1교과관 407호
XL	오전 50:00	제1교과관 407호
XLI	오전 51:00	제1교과관 407호
XLII	오전 52:00	제1교과관 407호
XLIII	오전 53:00	제1교과관 407호
XLIV	오전 54:00	제1교과관 407호
XLV	오전 55:00	제1교과관 407호
XLVI	오전 56:00	제1교과관 407호
XLVII	오전 57:00	제1교과관 407호
XLVIII	오전 58:00	제1교과관 407호
XLIX	오전 59:00	제1교과관 407호
L	오전 60:00	제1교과관 407호
LI	오전 61:00	제1교과관 407호
LI	오전 62:00	제1교과관 407호
LII	오전 63:00	제1교과관 407호
LIII	오전 64:00	제1교과관 407호
LIV	오전 65:00	제1교과관 407호
L	오전 66:00	제1교과관 407호
LI	오전 67:00	제1교과관 407호
LII	오전 68:00	제1교과관 407호
LIII	오전 69:00	제1교과관 407호
LIV	오전 70:00	제1교과관 407호
L	오전 71:00	제1교과관 407호
LI	오전 72:00	제1교과관 407호
LII	오전 73:00	제1교과관 407호
LIII	오전 74:00	제1교과관 407호
LIV	오전 75:00	제1교과관 407호
L	오전 76:00	제1교과관 407호
LI	오전 77:00	제1교과관 407호
LII	오전 78:00	제1교과관 407호
LIII	오전 79:00	제1교과관 407호
LIV	오전 80:00	제1교과관 407호
L	오전 81:00	제1교과관 407호
LI	오전 82:00	제1교과관 407호
LII	오전 83:00	제1교과관 407호
LIII	오전 84:00	제1교과관 407호
LIV	오전 85:00	제1교과관 407호
L	오전 86:00	제1교과관 407호
LI	오전 87:00	제1교과관 407호
LII	오전 88:00	제1교과관 407호
LIII	오전 89:00	제1교과관 407호
LIV	오전 90:00	제1교과관 407호
L	오전 91:00	제1교과관 407호
LI	오전 92:00	제1교과관 407호
LII	오전 93:00	제1교과관 407호
LIII	오전 94:00	제1교과관 407호
LIV	오전 95:00	제1교과관 407호
L	오전 96:00	제1교과관 407호
LI	오전 97:00	제1교과관 407호
LII	오전 98:00	제1교과관 407호
LIII	오전 99:00	제1교과관 407호
LIV	오전 100:00	제1교과관 407호

3월 총현 기도의 창

"미쁘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뎌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피인 중에 내가 피사니라"

- 1. 사순절(3.9~4.23)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본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2. 총현의 모든 성도가 거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로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3.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4. 위임당임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5. 십자가의 보혈로 통상한 신령한 예배(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6. 모든 교인과 교회회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7. 1년 1명(1·1·1) 전도하여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8.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16:15)에 자기를 부린다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9. 총현의 재단(유지·보수·복합·복합)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사업(당원모임·함양총현위원회) 및 중흥전 사업(남동교회)이 이웃 사랑의 열매(15%)가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주변 주자시 유의사항